

왕후이(王暉) ‘탈정치시대의 정치’ 소고*

이 연 도**

주제분류 중국현대철학

주요어 정치, 정당, 국가, 탈정치, 왕휘, 이데올로기

요약문

정치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정치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지난 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는 정치의 외연적 모습인 ‘국가’와 ‘정당’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거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갖는 한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과정의 하나로, 중국의 대표적 지식인 왕후이(王暉)의 사상을 화두로 삼은 것이다. 왕후이는 중국 ‘신좌파’ 그룹을 주도하는 학자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제기한 ‘탈정치시대의 정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글은 왕후이의 논문들을 중심으로 중국 정치개혁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현대사회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90년대 이후 중국의 정치 제도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黨政의 합일이다. 이는 80년대 중국 정치 개혁의 핵심이 당정분리에 있었다는 점과 뚜렷이 대비되는 특징이다. 정당의 대표성이 정치적 가치를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정당의 국가화는 정당의 가치 약화와 변화를 의미한다. 사회의 시장화 속에서 이데올로기 기구의 확산은 이러한 위기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모두 강력한 탈정치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과정 속에서 ‘탈정치화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정치의 형태에 대한 문제제기는 중

* 이 글은 2014년 11월 7일 중앙대 철학과 창설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정치란 무엇인가 - 탈정치 시대의 정치」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당과 계급, 국가라는 현대정치의 주체가 모두 탈정치화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찾는 과정은 곧 정치 영역을 다시 정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영역이면서, 동시에 누구도 쉽게 이야기하기 힘든 주제이다. 지난 해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이 사건은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왔던 '국가'와 '정당'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으며, 우리 시대의 정치 제도와 행위의 한계를 실감케 해 주었다. 이 글은 민주정치의 한 대안으로 중국의 대표적 지식인 왕후이(王暉)의 사상을 화두로 삼은 것이다. 왕후이는 중국 '신좌파' 그룹의 만형 격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문제 삼은 '탈정치시대의 정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왕후이가 제기한 '탈정치의 정치'를 중심으로, 그를 둘러싼 쟁점들, 그리고 중국의 정치개혁이 지닌 특징을 검토하고, 우리 시대의 '정치'가 고민해야 할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중국모델론'과 왕후이의 변질 논란

작년 초 우리 중국학계에선 『현대중국 지식인 지도』라는 책의 출간을 둘러싸고 흥미로운 논쟁이 전개되었다.¹⁾ <교수신문> 지면을 무대로 전개된 이 논쟁은 서평자의 비판에 대해 저자가 장문의 반박 글을 발표하며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²⁾ 조경란은 이 책에서 현대 중국의 지식인 그룹을 세 유형으로 구분한 '지식인 지도'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학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중국모델론'과 '신좌파' 지식인들에 대한 저자의 평가였다. 이 책에서는 신좌파의 대표 주자인 왕후이(王暉), 간양(甘陽), 추이지위안(崔之元), 왕사오광(王曉光) 등을 변절한 좌파 내지는 국가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모델론, 나아가 충칭(重慶)모델의 개

1) 조경란, 『현대중국 지식인 지도: 신좌파, 자유주의, 신유가』, 글항아리, 2013.

2) <교수신문> 713호(2013.12.30. 송인재), 715, 716호(2014.1.15. 조경란).

발과 발전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조경란의 평가는 중국의 제4세대 지도체제인 후진타오 주석 이후 중국 지식계의 변화를 진단한 일부 중국학자들의 논의와도 일치하는 견해이다. 중국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지식인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신좌파의 약진과 자유주의의 쇠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경향의 확대, 중국 전통 가치와 제도의 재평가, 서구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한 중국 본토성의 강조 등을 들고 있다.³⁾ 그 중에서도 신좌파 그룹의 역할 변화는 중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다. 이 논의의 배경엔 G2로 부상한 중국의 정책 변화에 신좌파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시장보다는 국가 통제 기능의 강조, 중국의 독자적 발전 모델 모색, 중국 경험과 특수성 중시 등은 신좌파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었다.⁴⁾

‘중국모델론’은 ‘베이징 컨센서스(The Beijing Consensus)’ 개념의 제기 이후 중국의 발전모델에 대한 논의를 총칭하는 것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구별되는 중국 사회주의의 특징에서 나온 말이다.⁵⁾ 이 논의는 중국 사회주의가 갖는 생명력에 대한 것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그 체제를 유지하고, 오히려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물음을 던진다. 이 문제에 대해 답하기엔 기존 서구의 사회과학 이론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중국모델론’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중국의 자주노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서로 대립적으로 인식되어온 마오쩌둥 노선과 덩샤오핑 노선을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3) 許紀霖, 『啓蒙如何起死回生』,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355-357쪽.

4) 이육연, 「중국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분화: 첸리훙과 왕후이의 경우」, 『동아연구』 제32권 1호, 2013, 76쪽.

5) Joshua Cooper Ramo, “The Beijing Consensus”, *The Foreign Policy Centre*, London, 2004. 丁學良, 『중국모델의 혁신』, 이희옥 외 역, 성균관대 출판부, 2012, 29쪽 재인용.

그 점에서 '중국모델론'은 중국 정부의 굴기(崛起) 정책이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공산당이 추진해 온 목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중국의 제5세대 지도체제인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정책 슬로건으로 내건 구호가 '중국의 꿈(中國夢)'이다. 장쩌민(江澤民) 체제의 '소강사회 실현',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의 '화해사회주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 슬로건이 곧 집권체제의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는 중국 체제의 특성을 생각하면, 현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중국의 이상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천명한 셈이다. 신좌파는 이 '중국의 꿈'에 동조하는 지식인 그룹으로, 그런 측면에서 90년대 정부 정책에 강력한 비판자로 기능했던 신좌파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들의 지금 행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왕후이와 신좌파 그룹이 국가주의자로 변모했다는 비판을 맨 먼저 제기한 것은 중국 내부의 자유주의파에 속하는 지식인 그룹이다. 쉬지린(許紀霖)은 이들 그룹의 한 명으로, 왕후이의 변모가 최근 중국의 주요 흐름인 국가주의 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사회 각 영역에서 '국가의 절대 지위를 강조하는' 사상적 흐름을 대변하며, 주류 이데올로기에 포섭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독일과 일본의 경험을 볼 때, 국가주의의 대두는 곧 민족 전체의 비극을 예고한다는 것이다. 비록 쉬지린이 국가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였던 '충칭 모델'은 최근 보시라이의 숙청과 함께 사라졌지만, 그가 '비판적 지식인'에서 국가주의로 '전향'한 지식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던 왕후이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남아있다.⁶⁾ 왕후이에 대한 최근의 변절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가 본래 지녔던 비판적 지식인의 면모가 어떠한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6) 許紀霖, “近十年來中國國家主義思潮之批判”, 『思想』 18, 2011. <http://www.aisixiang.com/data/41945.html> (검색일: 2015.1.10.).

1997년 왕후이가 『天涯』에 발표한 논문 「당대 중국의 사상 상황과 현대성」은 중국 지식계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그의 면모를 각인시킨 글이었다. 그는 여기에서 중국의 현대성은 ‘반현대성적 현대성’으로, 중국의 현대성, 즉 중국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서양의 자기성찰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염두에 두지 않고선 중국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는 그의 논지는 당시 중국 정부의 자유주의 정책에 강력한 비판으로 작용하였다. ‘현대성’개념에 내재한 중국과 서양,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성찰을 강조한 왕후이의 주장은, 자신들의 논리에 서구식 발전 도식을 별다른 고민 없이 그대로 적용한 자유주의자들의 논리가 지닌 취약성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당시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의 생각은 90년대 중국이 시장사회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에 의해 순진한 낙관주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 점에서 왕후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한 자유주의 정책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로, 그리고 이를 선도하는 지식인 그룹의 대표 학자로 인식되어 왔다. 90년대 중반 왕후이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자유주의파와 신좌파 사이의 논쟁은 신자유주의가 전지구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해체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결국 이 논쟁은 중국의 현대성 문제와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사회의 제 문제를 핵심쟁점으로 한 쌍방간의 심각한 의견대립으로 이어졌다.⁷⁾ 그런 왕후이가 이제 ‘국가주의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7) 조경란, 「중국에서 신좌파와 비판적 지식인의 조건-왕후이의 ‘중국모델론’과 21세기 지식지형의 변화」, 『시대와 철학』 제24권 1호(통권 62호), 2013, 249쪽.

2. 당-국 체제에 대한 옹호와 비판

왕후이가 2010년 발표한 「중국 굴기의 경험과 도전」은, 중국과 국외에서 그의 변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글이다. 왕후이는 여기에서 중국 경제의 성공 배경으로 중국의 당-국 체제와 자주노선을 들었다. 중국 개혁의 성공 요인은 시장과 인민,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중성정부(中性政府) 혹은 중성국가(中性國家)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경대 야오양(姚洋) 교수의 중성국가론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로, 이 점에서 슈즈린의 왕후이 비판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왕후이에 대한 비판자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첸리췌(錢理群) 전 북경대 교수이다. 슈즈린이 왕후이와 본래 대립적 관점에서 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같은 노선 연구자로 오랫동안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 왔던 첸리췌의 비판은 왕후이에게 훨씬 뼈아픈 지적으로 다가온다. 두 사람 사이에 깊게 파인 상처는, 첸리췌가 왕후이를 오랜 친구이자 계몽주의의 전우였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처럼 변해버린 느낌”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⁸⁾

첸리췌는 왕후이의 국가주의 경향은 그가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에 대해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한다. 중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 정부와 당의 역할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대립은 중국 지식인 사회의 대표자로서의 위상 뿐 아니라, 양자의 견해가 현 중국의 정치 지형에 대한 공적인 입장 차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첸리췌의 입장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은 마오쩌둥과 그의 시대에 대한 평가이다. 그는 ‘마오쩌둥 시대’는 두 개의 중국, 두 개의 발전 노선이

8) 錢理群. “回顧2010年”, 2011. <http://www.wenku.baidu.com>. (검색일 2015. 1. 10.)

서로 대립하면서, 저항과 탄압이 연속된 시기라고 이해한다. ‘사회주의 중국’의 역사는 마오쩌둥 혹은 마오쩌둥 이데올로기가 주도한 사회주의와 민간사회주의라는 양 노선의 대립과 투쟁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비록 마오쩌둥의 강력한 탄압에 의해 말살되었지만, 줄곧 완강하게 지탱해 온 지하중국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을 이루는 기본 바탕이다.⁹⁾

그는 중국이 중요한 역사의 고비와 부딪힐 때마다, 이 두 가지 노선은 서로 다른 견해와 구상을 내놓았다고 주장한다. 1956년 소련 공산당의 스탈린 비판은 마오쩌둥에게 중국이 독자적인 발전노선으로 가야 한다는 자각을 불러일으켰지만, 당시 대학생들 역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마오쩌둥이 제기한 해결 방침은, 일당지도체제 하에서 각 민주당파가 서로 감독하며 공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반면, 당시 대학생들은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고 특권계층의 형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7년 마오쩌둥은 반우파 투쟁을 계기로 신민주주의 노선을 버리고, 사회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수립하면서 민주사회주의 전통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는 중국현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첸리췌는 ‘57체제’가 계급과 성분에 따라 좌파와 우파를 모두 정치적으로 줄을 세우고, 당 중앙과 당의 1인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첸리췌가 보기에, ‘57체제’는 마오의 죽음이나 문화대혁명의 종결 이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마오쩌둥 사상은 이미 중국인의 사유나 행위, 언어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었고, 민족정신이나 성격, 기질에도 아주 깊이 새겨졌다. 중국 현실에 대한 그의 깊은 우려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는 공산당의 대중적·계급적 기초는 장쩌민의 ‘삼개대표이론’ 이후 더욱 후퇴했다고 평가한다. 더구나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이었던 세대들이 오늘날 대륙의 실질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우려는 더욱 깊어

9) 錢理群,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연광석 역, 한울아카데미, 2012, 508쪽.

졌다.¹⁰⁾ 중국 사상계의 분화, 왕후이와 신좌파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그의 글 “2010년을 돌아보며(回顧2010年)”는 이러한 입장을 전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첸리췌는 현 중국의 문제는 “가장 나쁜 사회주의와 가장 나쁜 자본주의의 악성 접목”이라고 꼬집는다. 사회주의에선 ‘독재’만 남았고, 자본주의에서는 ‘착취’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는 신좌파가 국가주의로 흐른 원인에 대해, 신좌파의 본래 입장인 중국의 자주적 노선은 합리적이지만, 그것의 중요한 전제인 중국 스스로 자신의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전제를 소홀히 한 데 있다고 본다. 신좌파는 이 과제를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이상화함으로써, 중국모형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자, 민족주의자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왕후이는 정말 변절한 것일까.

왕후이는 문제의 글 「중국 굴기의 경험과 그것이 직면한 도전」에서 ‘중국은 왜 붕괴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을 먼저 던진다. 중국의 발전과 그 지속성을 의심하는 외부의 시각을 반영한 이 질문에 대해, 그는 중국의 자주 노선, 그리고 활발한 정치논쟁 전통이 그 비결이라고 답한다. 중국 정치 체제의 상대적 안정성은 정당의 국가 기구에 대한 독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중국의 독자적 주권과 함께 자기갱신 능력을 확보하는 가장 든든한 근거라는 것이다. 또한 자신과 신좌파를 포함한 중국 지식계의 논쟁이 그러한 당내노선투쟁의 기능을 일부 대체할 수 있었다고 밝힌다. 당내의 이러한 실천적 행동이 정당과 국가의 자기 조정 기제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농민의 능동적 역할로, 중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불평등과 부패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고 이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계층의 정치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는 진단한다. 왕후이는 이러한 능력의 배경으로 문화대혁명의 경험을 들어 첸리췌와 그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 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당과 국가의 고위급 간부들

10) 이육연, 앞의 글, 81-83쪽.

이 향촌으로 내려가 일반 인민들과 10여년 가까이 함께 생활한 문혁의 경험이 이후 국가와 정부가 기층사회의 요구에 대해 민감한 반응능력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본다.

중국의 국가 성격은 이처럼 구체적 혁명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 전제는 절대다수 인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는 것이 왕후이의 기본 입장이다. 그의 이러한 현실 인식은 중국 특색의 현대성 모색이라는 그의 작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이는 그가 마오쩌둥 사상과 문화대혁명을 ‘반현대성적 현대성’라고 규정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첸리쑤이나 쉬즈린이가 그가 ‘국가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의 반서구적 경향과 중국 나름의 새로운 대안 모색이라는 그의 작업이 지닌 이러한 내적 성격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정작 왕후이 본인은 신자유주의 비판이라는 본래의 입장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¹¹⁾

왕후이와 그의 비판그룹과의 가장 큰 입장 차이는 ‘문혁’에 대한 평가이다. 왕후이의 ‘문혁’에 대한 시각은 중국 지식인 그룹의 일반적 통념과 큰 차이를 보인다. 왕후이는 ‘문혁’이 중국사회주의 내부 분열로 인해 제기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시도로, 당-국 체제의 ‘소외’(또는 ‘탈정치화’)를 사상적·정치적으로 제어하려 한 것이라고 본다. 이 시도가 초래한 비극적 결과에 대해선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회주의적 당-국 체제에 대한 분석 없이는 중국의 정치개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대혁명의 발생 원인으로, 중국 공산당이 혁명 정당의 정치적 기능을 상실하고, 국가의 관료주의에 복무하게 된 데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정당의 국가화 과정에 대해 마오쩌둥이 대중 참여를 통한 사회 운동과 정치투쟁을 통해 저지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첸리쑤의 왕후이 비판은 잘못된 전제에 의한 비판이다. 첸

11) 송인재, 「왕후이의 ‘재정치화’ 담론 소고」, 『중국과 중국학』 22호, 2014. 참조.

리쥘이 당-국 체제의 형성 과정에 마오쩌둥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본 반면, 왕후이는 오히려 마오쩌둥이 당-국가 체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한 것으로 평가한다. 왕후이는 1957년 이후 중국정치의 관료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마오가 대중을 동원한 참여형 민주주의로 이를 저지하려 한 시도가 문혁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그는 문혁의 비극으로 제기된 인민민주주의를 독재와 같은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을 비판하며, 오히려 이러한 시도가 탈정치화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왕후이는 첸리쥘이 자신을 비판하는 핵심 이유로 정당국가화, 즉 '당-국체제(黨國體制)'를 지지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다. 당-국가 체제는 그가 중점적으로 비판한 부분이며, 중성정부론을 제기한 것 역시 과거의 중국 정부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근거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오독'에 의한 오류라는 것이다. 그는 현 중국에서 국가의 중립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었고, 당-국가화의 전통은 국가-당 체제로 재편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탈정치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모순된 개념의 조합에서 알 수 있듯,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그 유례가 없는 실험이다. 그 실행주체로서 중국의 국가 기구는 시장의 활동에 깊이 개입해 들어갔다. 여기에서 관건은 국가가 소수의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다수 인민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이다. 중국 정부와 정당 그리고 사회 전반의 사회주의 역량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야오양의 '중성국가' 개념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문제는 현 중국의 실제 모습이 점차 초기와 달라지는 데 있다. 오늘날 중국의 국가 기구는 더 이상 시장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사회구조와 사회의 이익관계 속에 깊이 파고 들고 있다. 국제관계나 국내의 이익관계 또한 국가의 여러 기제 내부에 심각하게 침투하고 있다. '중성국가'론이 오늘날 중국을 묘사하는 것으로 적합지 않은 이유이다.

그 점에서 왕후이가 ‘중성국가’론에 동의한다는 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그는 ‘중국모델’의 기반으로서 국가 기구의 사회주의적 전통에는 동의하지만, 현 체제의 중립성은 부정한다.

3. 정당의 국가화와 탈정치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정치는 여러 유형의 당-국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이었으며, 정당정치는 기존 국가정치의 궤도에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법이 없었다. 정치적 행위자로서 정당과 국가는 서로 경쟁하면서 각자가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전통적 모습은 개혁개방 이후 정당이 국가 기구의 집행자로 변모하면서, 그 형태가 달라졌다. 그 결과 정당과 사회적 토대 간의 관계가 더 이상 명확하지 않게 되었으며, 정당의 정치이념과 실천의 관계 또한 내재적 연관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왕후이는 이러한 변화를 ‘당-국체제’에서 ‘국-당체제’로의 변화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정당의 국가화 과정’은, 중국 정치의 특징이었던 ‘당치(黨治)’체제가 국가 중심의 통치체제로 전환되는 배경이 된다.

왕후이가 2007년 발표한 「탈정치화의 정치, 헤게모니의 다중 구성과 60년대의 소실」은 중국 정치의 관료화와 탈이데올로기화를 본격적으로 비판한 글이다.¹²⁾ 탈정치화의 외형적 형태는 정치의 관료화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정이 권력을 둘러싼 투쟁에만 몰두하면서 당내의 정치 토론이나 지식인, 청년,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정치 주체성을 부정하는 모습이다.

당의 국가화 과정이 갖는 문제점은 정당 자체가 탈가치화의 과정에서 본래의 대표성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 영역의 탈이론화와 정치

12) 汪暉, 2007. 「去政治化的政治, 霸權的多重構成與六十年代的消逝」, 『開放時代』, 2007年第2期.

논쟁의 소멸 역시 탈정치화 과정의 핵심적 부분이다. '혁명'과 '건설'이라는 변증법적 긴장 관계가 이제 경제 개혁을 중심으로 한 당의 방침에 따라 '혁명'이 제외된 '건설'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계급 개념이 사라지면서 그 핵심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과정에 집중된 것은 탈정치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왕후이는 여기에서 '60년대의 가치가 소실'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즉 이 시기의 정치 토론과 대중 운동을 정상적인 정치의 원형이라고 본 것이다. 문혁 초기, 마오쩌둥은 사회운동과 정치논쟁을 통해 정당과 국가의 절대적 권위를 타파하고, 혁명정당의 정치적 가치를 복원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구체적 실행으로 파리코빈을 모델로 한 공장, 학교 및 각 기관에서 시도한 자치 실험을 들 수 있다. '세가지 대표대회(三代會), 즉 공대회(工代會), 농대회(農代會), 홍대회(紅代會) 등의 대중조직'과 이와 비슷한 시도가 여러 지역에 출현하였다. 문혁 중에 나온 4대 자유, 대명(大鳴), 대방(大放), 대변론(大辯論), 대자보(大字報)는 대중 참여를 통해 당-국가관료 체제의 틀을 타파하려는 시도였다. 문혁 당시 혁명위원회는 코뮌운동의 각종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노동자와 농민, 병사 대표를 선출하여 각급 정부와 당의 지도부에 포함시켰고, 각급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조를 나누어 향촌과 공장에 직접 가서 활동하였다. 비록 노동자와 농민, 학생 또는 병사 대표가 국-당 체제에 적응하지 못해 권력구조의 주변부에 머문 것은 유감이지만, 국가의 시대에 국가를 혁신하려고 한 시도는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게 왕후이의 평가이다. 중국이 포스트문혁 시대 소련의 관료체제와 비교해서 큰 탄력성을 갖출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러한 경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왕후이는 마오쩌둥 시대와 덩샤오핑 시대를 연속이 아닌 충돌과 긴장의 측면에서 본다. 「도전」에서 양자를 하나의 '중국모델'이라는 연속선상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글은 그 입장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소실」과 「도전」이 시간적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왕후이의 사상적 혼란을 반영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자기 교정 능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첸리췌와 왕후이는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인다. 첸리췌는 왕후이가 제기한 중공당과 중국 정부의 자기 교정 능력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보인다. 문혁 후기부터 6·4천안문 사태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자신의 과오를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나는 것이다.¹³⁾ 이에 대해 왕후이는 개혁개방 정책의 결정 과정이나 90년대 이후 삼농(三農) 문제, 2005년 국유기업 개혁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적 평등’을 모토로 한 ‘화해사회주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내의 활발한 정치 토론과 논쟁의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단순히 형식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평가해선 안된다고 반박한다. 설령 다당제에 기본적인 민주주의 체제라 하더라도, 공공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인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 능력은 오히려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문제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이러한 반응 능력과 자기 교정 능력이 과거형이 되었다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중국의 제도와 실천에서 당정의 합일은 눈에 자주 띄는 현상이 되었다. ‘정당의 국가화’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당의 국가화가 위험한 이유는, 정당과 국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면 정당 역시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장사회의 이익관계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이를 어떤 역량이나 기제로 제어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정당의 보편적 대표성은 그 정치적 가치를 통해 완성되는데, 정당의 국가화는 정당의 이러한 가치를 약화시키거나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다당제를 채택하는 서구나 다당합작제를 시행하는 중국 모두에 해당된다. 정당이 국가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할 때,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관심은 관리와 행정으로

13) 錢理群, 「回顧2010年」, 2011.

14) 이육연, 앞의 글, 93쪽. 재인용.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인민과 결합되어 있던 정치적 활력은 약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인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장’이라는 배경 속에서 정당은 갈수록 그 대표성을 상실하고, 정당의 정치적 가치는 표를 얻기 위한 활동 속에서 모호해졌다. 중국 정치의 위기는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위협은 ‘시장’과 ‘글로벌화’라는 세계적 문제로부터 온 것이다. 마이클 샌델이 지적한 대로 오늘날 세계는 ‘시장경제(having a market economy)’에서 ‘시장사회(being a market society)’로 변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위기는 이 ‘시장화’된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가장 큰 변화는 국가의 시장화로, 정당이 자본의 논리에 좌우되면서 기층 인민을 대변하던 대표성을 상실한 것이다. 정당이 이익집단화되면서, 형식적 민주주의는 점점 기층민중과 유리되어 간다. 정당은 갈수록 과두화(寡頭化)되어 가고, 대의제 민주주의는 허울로만 남았다. 과거 정당의 활동은 사회와 인민의 활발한 운동을 주도하고 조직했던 데 비해, 오늘날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형식적 정치 형태는 더욱 안정화되어간다는 것이다. 정당정치의 대표성 원리는 그대로인데, 그 대표성의 상실이라는 이 모순적 상황이 오늘날의 정치 위기의 본질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형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이다.

왕후이는 이에 대한 해법을 문혁의 경험에서 찾는다. 그가 보기에 오늘날의 정치 위기는 그 내용적 측면에서 문혁 당시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즉 현대 정치의 위기는 정당 정치의 위기이고, 이는 90년대말 이후 점차 강화된 탈정치화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현 중국에서 ‘탈정치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이데올로기 영역의 ‘탈이론화’로, 덩샤오핑의 ‘논쟁금지(不爭論)’ 지시를 계기로 ‘돌을 더듬어가며 강을 건넌다(摸着石頭過河)’는 식의 실천 일변도로 바뀐 것이다. 이와 함께 당내 노선투쟁의 종결로, 당의 사업 전체가 혁명과 별도로 경제 개혁

으로 모두 옮겨가 버렸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정치의 기초인 평등에 기반한 정당성 위기를 초래하였고, 국가 기구에 대한 정당의 제재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중국 혁명과 사회주의 실천의 핵심적 가치가 사회적 평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폭력 기구, 즉 군대나 경찰, 법률체계나 경제 발전, 소비주의에만 의지하는 사회의 안정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객관적인 구조라기보다는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다. 정치 활동은 능동적 주체가 행하는 것으로, 정치와 주도권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왕후이는 정치적 주체성은 정치 주체 간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행위주체의 능동성에 대한 정치의 의존과 정치 행위의 조직화는 역사에서 항상 함께하면서 동시에 서로 충돌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¹⁵⁾ 오늘날 중국의 정치적 위기는, 정치의 주도권을 쥔 정당과 능동적 주체로서의 인민이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정당은 더 이상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특수한 이익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본래 사회의 서로 다른 이익과 의지를 체현하고 조화시키던 정당 정치가, 어느 순간 분열된 국가 관계 속에서 어느 한 편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전락한 것이다.

사회적 시장화 속에서 이러한 위기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인이 이데올로기 기구의 확산이다. 시장주의 이데올로기 기구의 직접적인 대변자인 마스크, 광고, 대형 마트 및 다양각색의 상업적 메커니즘은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다. 이들은 사람들의 일상성과 감각에 호소함으로써 공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장 논리에 복종하게 만든다. 시장의 이데올로기와 기구는 강력한 탈정치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탈정치화라는 사회적 과정 속에서 ‘탈정치화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한다. 정부를 감시하

15) 왕후이, 『탈정치시대의 정치』, 성균재외 역, 돌베개, 2014, 126-127쪽.

고 공론장 역할을 수행해야 할 매체의 변화는 탈정치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한다.

왕후이는 이데올로기 기구로서 '미디어'에 주목하고 현 중국의 정치 위기를 정당의 국가화, 정부의 기업화, 정치인의 미디어화, 미디어의 정당화로 정리한다. 오늘날 정치와 미디어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하다. 표면적으로는 정치가 미디어를 컨트롤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자의 관계에서 전자는 후자의 식민지로 변화해가고 있다. 정치인이 대중에 영합하는 발언을 할 때, 그 언어는 미디어의 논리를 그대로 내면화한다. 미디어와 정당이 벌이는 게임은 안정과 법치 혹은 대국(大局) 등과 같은 명목에 의지하지만, 그 실질은 공공의 필요를 빙자하여 벌이는 이권 갈등이나 대립에 가깝다. 오늘날 국민의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이제 미디어 권력이 국민의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압제 메카니즘의 일부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정당과 미디어가 사실은 일체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당화된 미디어와 미디어 권력을 길러낸 정당 사이의 경쟁은 자기들 사이의 게임으로 국민의 언론 자유와 정치적 토론을 대체하거나 은폐한다.¹⁶⁾

4. '재정치화'의 가능성

그렇다면, 탈정치의 정치 시대, 왕후이가 중국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그는 20세기 중국의 정치적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문화와 이론 논쟁, 그리고 군중노선을 통해 확보된 정당의 정치적 활력을 든다. 오늘날 중국에서 문혁에 대한 비판은 실제로는 이론 투쟁과 노선 논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 주된 목적

16) 이연도, 「탈정치 시대, 대안은 무엇인가」, 『녹색평론』 139호, 2014, 232-234쪽.

을 두고 있다는 그의 판단은 그가 정치의 복원에서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정치 토론이 부재한 정당은 자기교정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인민과 단절된 정당은 정치 영역을 자기들만의 자폐적 공간으로 축소한다.

정당의 국가화는 필연적으로 군중과 정당의 관계를 점차 사회와 국가의 관계로 변화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관리의 범주로 전화되며, 정치는 탈정치화된 정치로 변모한다. 오늘날 정치개혁의 방식에 대해선 크게 두 입장이 존재한다. 첫째는 고전적 의회정치에 기반하여 다당제 정치를 보완하려는 우파의 입장이다. 좌파는 정당의 정치적 대표성의 회복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양자의 공통점은 모두 정당정치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상황에 비춰 보면, 후자의 문제의식이 훨씬 더 현실과 밀착되어 있다. 정당의 대표성 복원이라는 과정에서 군중노선과 사상 논쟁, 조직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 최종적 목표가 이전의 정당 모델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미래의 정당 정치가 어떤 모습일지는 명확하지 않다. 왕후이 역시 이에 대해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내세우는 원칙은 현실 조건 속에서 가능하면 많은 인민이 직접 정치적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정당의 기본 특징은 개방성과 군중 기초이며, 그 점에서 왕후이는 대중 민주가 민주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확보하는 가장 든든한 근거라고 본다. 군중노선과 군중정치야말로 정치적 활력의 원천이며, 동시에 우익 포퓰리즘을 억제하는 주춧돌이라는 것이다.¹⁷⁾ 이 점에서 왕후이와 그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왕후이가 ‘혁명과 고별’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가능성을 강조한 것은, 이 원칙이 새로운 정치발전의 계기

17) 왕후이, 앞의 책, 249쪽.

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정당과 계급, 국가라는 현대정치의 주체가 모두 탈정치화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찾아내는 과정은 곧 정치 영역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다. '탈정치화'의 핵심이 정치적 가치의 폐지와 후퇴라면, '재정치화'가 가야 할 길은 소멸된 정치적 가치의 재건과 우리의 정치적 삶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왕후이의 '탈정치화'에 대한 논의는 중국을 그 무대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왕후이가 '문화적 자각'에 대해 얘기한 내용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문화적 자각에는 현재 주도적 지위에 있는 발전 모델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질의와 문제제기가 필수적이다.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발전 모델은 세계의 여러 문명을 크게 훼손했다. 이 점에서 문화적 자각이란 오늘날 세계의 발전, 우리 자신의 전근대와 근대 두 측면의 역사적 전통 위에서 새로운 세계의 서막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¹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우리의 역사적 전통에 기반한 정치의 기능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18) 汪暉, 「面向新世界圖景的文化自覺」, 『文化縱橫』, 2012年 第2期, 19쪽.

참고문헌

- 왕후이, 『탈정치시대의 정치』, 성근제·김진공·이현정 역, 돌베개, 2014.
- 왕후이, 『죽은 불 다시 살아나: 현대성에 저항하는 현대성』, 김택규 역, 삼인, 2005.
- 조경란, 『현대 중국 지식인 지도: 신좌파 자유주의 신유가』, 글항아리, 2013.
- 錢理群,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연광석 역, 한울아카데미, 2012.
- 丁學良, 『중국모델의 혁신』, 이희옥 외 역, 성균관대 출판부, 2012.
- 이창휘·박민희, 『중국을 인터뷰하다』, 창작과 비평사, 2013.
- 許紀霖, 『啓蒙如何起死回生』,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 이옥연, 「중국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분화: 첸리쑤와 왕후이의 경우」, 『동아연구』 제32권 1호, 2013.
- 성근제, 「왕후이는 타락하였는가?」, 『동아시아 브리프』, Vol.6 No.4.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1.
- 조경란, 「중국에서 신좌파와 비판적 지식인의 조건-왕후이의 ‘중국모델론’과 21세기 지식지형의 변화」, 『시대와 철학』 제24권 1호(통권 62호), 2013.
- 송인재, 「왕후이의 ‘재정치화’ 담론 소고」, 『중국과 중국학』 22호, 2014.
- 이연도, 「탈정치 시대, 대안은 무엇인가」, 『녹색평론』 139호, 2014.
- 汪暉, 「去政治化的政治, 霸權的多重構成與六十年代的消逝」, 『開放時代』, 2007年第2期.
- 汪暉, 「中國崛起的經驗及其面臨的挑戰」, 『文化縱橫』, 2010年 第2期.
- 汪暉, 「面向新世界圖景的文化自覺」, 『文化縱橫』, 2012年 第2期.
- 錢理群, “回顧2010年”, 2011. <http://www.wenku.baidu.com>. (검색일 2015. 1. 10.)

許紀霖. “近十年來中國國家主義思潮之批判”, 2011. 『思想』 18.

<http://www.aisixiang.com/data/41945.html>. (검색일: 2015.1.10.).

Wang Hui's Politics in the Depoliticized Era

Lee, Yun-do (Chung-Ang Univ.)

What is politics? Nowadays the reality of Korean society raises serious questions on the goal and meaning of politics. After the sinking of the MV Sewol last year, we could discern the true face of ‘the state’ and ‘the political parties’ as the denotations of politics. In addition, we could confirm the limit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based upon the elections. This paper deals with the thought of Wang Hui, a leading intellectual of China, as a process of seeking a new alternative. Wang Hui is a scholar who leads Chinese New Leftism, also well known to Koreans. ‘Depoliticized Politics’ he suggested can be applied to many cases in Korea as well as in China. This paper will consider how politics has changed in modern society,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political reformation, focus on Wang Hui’s work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in Chinese political system and practice is the unity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after 1990s. This is contrast to the fact that the key to the political reformation in the 1980s was the separation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When remembering that the representative character of the political party is completed through the political values, the governmentalization of the party means the weakening and change of the party’s value. The spread of the ideological apparatus works as another factor instigating these crises. These days, the media and advertisements have control over people’s lives and senses, and demand active obedience of the citizen.

All of the situations remarkably show the 'Depoliticized' features, and reconstruct the political ideology of 'Depoliticization'. In this phase, raising the question on what is the form of democracy has the significant meaning. In the conditions that the subjects of modern politics such as political parties, classes, and states are in danger of 'Depoliticization', the pursuit of the new political subjects is giving a definition of the realm of politics. Therefore, this paper is a discussion on the way of drawing up a plan that will reconstruct the perished political values and activate our political lives.

Key words: Politics, political parties, Wang Hui, Depoliticization, Ideology

이연도 e-mail: lyd415@hanmail.net

투 고 일	2015년 01월 20일
심 사 일	2015년 02월 03일
게재확정	2015년 02월 14일